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OCTOBER 2021 VOL.20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김기봉 원로 인터뷰

노력의 땀방울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인터뷰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을 넘어 세계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생활체육의 위상을 갖추다!

해운대구체육회



CONTENTS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김기봉 원로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달려온 육상계의 대부를 만나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신사적인 스포츠 럭비로 새로운 길의 주인공이 되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해운대구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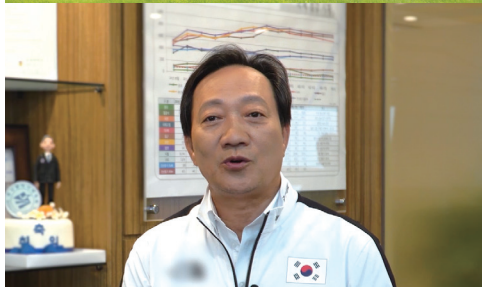
부산을 넘어 세계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생활체육의 위상을 갖추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

환상의 호흡으로 무대를 휘어잡다



BSC 뉴스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세요!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달려온 육상계의 대부를 만나다

부산을 넘어 한국과 아시아, 세계의 육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육상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고운(孤雲) 김기봉 원로. 어린 시절부터 공부와 달리기를 잘해 우등상을 놓치지 않던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꿈꾸며 본격적인 체육인의 길로 들어섰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김 원로가 가르친 선수들은 한국신기록 35회, 부별신기록 24회, 대회신기록 114회,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은 700회를 웃도는 등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당시 손수 써내려간 자료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 만큼 큰 애정에 노력과 전문성까지 더해지니 승승장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김기봉 원로

1978년 제8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1979년 제3회 도쿄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육상 국가 대표 코치는 물론 13년간의 MBC 육상 해설과 올림픽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의 해설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대한육상연맹(KAAF), 아시아육상연맹(AAA), 세계육상연맹(WA) 등의 경기규칙을 수정 및 개정한 일은 김 원로의 큰 보람으로 남았다.

부산·울산·경남 육상 및 체육연맹과 대한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임원이자 세계육상연맹의 국제기술임원(ITO)으로서 실 새 없이 이어온 그는 “달리고, 뛰고, 던지는 육상의 동작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함께 한다는 올림픽경기대회의 표어와도 이어지는 인간의 기본 활동이자 스포츠의 근간”이라며 모든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육상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평생 육상과 함께한 김기봉 원로가 있기에 육상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신사적인 스포츠 럭비로 새로운 길의 주인공이 되다

럭비는 수비를 할 때는 태클로 공격을 막아 공을 빼앗으며, 공격에서는 격렬한 밀집 플레이가 이뤄지다 보니 과격한 스포츠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서로 편 가름 없이 하나가 된다는 ‘노 사이드 정신’을 중시하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다.

럭비의 3대 정신인 인내, 희생, 협동 중에서도 희생을 강조한다는 부산체육고등학교럭비팀은 제2회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럭비대회 1위에 이어 2021년 전국 춘계럭비리그전에서 2위를 하면서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에는 학생들의 근성과 단합 못지않게 부산광역시럭비협회와 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등의 꾸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든 훈련을 할 때는 서로 불만이 생기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함께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잘 지내요.”

자주 소통하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가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의 목표는 팀만의 전통과 색깔을 만드는 것이다. 수비가 강한 팀이 있고, 태클을 잘하는 팀이 있듯 뚜렷한 색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자신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경기 때마다 몸으로 부딪히고, 당당히 팀만의 자리를 만들어온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그들의 화려한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부산을 넘어 세계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생활체육의 위상을 갖추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해운대구체육회



해운대구체육회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비전으로 31개 종목단체(정회원 21, 준회원 2, 인정단체 8)와 340개 클럽(회원 16,773명)이 소속되어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내내 서핑을 배울 수 있는 '송정서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내에서 올해 현재까지 약 880여 명이 참가해 서핑 수업을 받았으며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APEC나루공원과 동백공원, 장산여명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생활체육교실'은 해운대구민들의 일상 활력소가 되고 있다.



김상철 회장의 각오!

해운대구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장점을 살려 '해운대 트리아슬론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6개의 동체육회를 중심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류 및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체육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동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종목단체와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해운대구e스포츠협회와 해운대구 필라테스연맹, 해운대구주짓수협회, 해운대구 에어로빅힙합협회, 해운대구파크골프협회를 발족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생활체육이 주춤했던 2020년도에는 해운대구걷기협회와 해운대구 유도회를 신규 발굴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에 맞는 신규 종목 발굴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장산-해운대해수욕장-수영강을 연계하는 코스를 발굴 중이며, 국제행사인 '철인3종경기' 지원 등을 통해 세계도시 해운대구로 나아가고 있다.



환상의 호흡으로 무대를 휘어잡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1위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클럽은 2016년 창립해 처음 참가한 2016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에서 3위, 2017년 같은 대회에서 2위의 쾌거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창립 3년 만에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1위를 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에 부산 대표로 참가했다.

빠른 성장과 눈부신 성과로 멤버도 늘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도 형성됐지만 코로나19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회 참가를 2년 가까이 못했고 연습에도 제약이 생겼다. 그러나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의 열정은 여전하다. 조만간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더들이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무대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세요!

앞으로도 부산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여가 지도활동 서비스를 이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5일(화)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영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스포츠복지’를 부산광역시체육회 유튜브 채널과 LG헬로비전에서 방영하고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를 배경으로 프로그램이 펼쳐지기 때문에 잠시나마 집콕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산진구체육회 편’을 첫 방송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0분에 구·군체육회별로 16회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